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나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14
----------	-------

발의년월일 : 2019. 9. 11 .

발 의 자 : 나정숙 의원 등 21명

1. 주 문

- 안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안산시의회에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만들어진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회수되지 못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은 토양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인간이 같이 공존하여야 할 동식물을 위협하여 결국 그 피해를 인간이 되돌려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매년 버려지는 일회용컵은 257억개, 페트병은 27만4천톤, 비닐봉지는 1인당 420개 정도로 OECD국가 중에서도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하며, 경제규모나 국민교육수준에 비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제한에 대한 인식은 다른 환경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도시인 안산시가 대표 환경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안산시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지와 실행방안을 결의하여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안산시의회는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재활용품 수거 및 재생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기본 방향과 실천 행동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원 개개인의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의지와 행동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안산시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석자들에게 텀블러 등을 지참하도록 미리 홍보한다.

하나, 안산시의회의 모든 화장실에서는 종이타올 사용을 중지하고, 의원들은 손수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고 내방객들은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각종 보고서와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전자파일을 이용하며, 부득이 종이 문서 출력시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한다.

하나,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수행 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예산 편성·반영에 적극 노력하고, 반대로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산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2019년 9월 1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